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8.(월) 06:00 < 5.8.(월) 석간 > 배포 2023. 5. 4.(목)

인태지역 경제협력플랫폼 구축 가속화

- 5월 8일부터 8일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관계부처 대표단과 함께 오는 5월 8일(월)부터 5월 15일(월)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참석한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대표단은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모색할 예정이다.

공급망 분야(필라2)의 경우 역내 공급망 복원력, 생산성, 다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조항들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이번 협상 시에는 공급망 점검(모니터링) 강화, 역내 위기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등 조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분야는 우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 규범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하였다.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의 경우, 이번 협상을 통해 참여국 간 무역규범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사업(프로젝트)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건기 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차기 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한 만큼, 인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붙 임】 IPEF 제3차 협상 개요

담당 부서	통상교섭실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책임자 담당자	팀 장 장미화 (02-2100-1370) 사무관 윤이경 (044-203-57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IPEF 제3차 협상 개요

□ 일시·장소 : ‘23.5.8.(월)~5.15.(월), 싱가포르

□ 참석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차관/차관보급) 및 실무 협상단

- ㅇ 정부 대표단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19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

□ 협상 의제 :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4개 분야

□ 협상 구성 : 분야별 실무협상 및 수석대표회의

【참고】 IPEF 진행 경과

- ’22.5.23, 출범
- ‘22.9.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
- ’22.12.10-15/호주, 1차 협상
- ’23.2.8-11/인도, 특별협상 (필라2·3·4에 대한 협상만 진행)
- ’23.3.13-19/인도네시아, 2차 협상 개최